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정책의 역할

## Tourism Resource Development for the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ic and the Roll of Tourism Policy

김태현\*, 박숙진\*\*  
 조선대학교\*, 한국관광평가연구원\*\*

Tae-Heon Kim(euro@chosun.ac.kr)\*, Suk-Jin Park(mainzpark@hanmail.net)\*\*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관광자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관광자원, 관광정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관광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설문조사는 2010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충청지역과 경상도지역의 국 공립 연구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최종 283부의 연구샘플이 수집되었고, 통계 처리는 SPSS 15.0과 AMOS 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관광자원이 풍부할수록 지원제도와 유치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원제도는 유치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광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유치전략에 의한 효과보다 지원제도에 의한 간접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관광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의외로 기각되었는바, 우수한 지역관광자원의 보유와 무관하게 관광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지역경제에 무익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관광특구, 지역축제, 문화제의 지정 등을 통한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패키지화를 추구하되, 개발 및 선정기준의 업그레이드와 지속적인 평가관리를 통해 지자체에 의한 남발과 중복투자를 막고 관광부문의 질적 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5+2광역경제권이 출범한 상황에서 관광분야의 광역연계협력사업이나 초광역적 연계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중심어 : | 관광자원 | 지원제도 | 유치전략 | 지역경제 |

### Abstract

This study aims at proposing clear direction of tourism policy through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ourism resource, tourism system and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ic. A total of 283 samples were ultimately collected in survey of 300 researchers from the national and public institutes in provinces Chungchong-do and Kyungsang-do in July 2010 alone. SPSS 15.0 and AMOS 6.0 were used to test the model. Analysis showed that the more regional tourism resources have more significant effect on tourism system and tourist-attracting strategy, and that tourism system exerts influence on tourist-attracting strategy. So it was proved that the tourism policy effects meaningfully on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ic,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tourism system is more effective on the energization of regional economic than the tourist-attracting strategy. But the hypothesis has been rejected unexpectedly that tourist attractions have consequences for the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ic. It establishes the fact that it is useless for regional economy regardless of abundant regional tourism resources, if the tourism policy is not concretely in force. Therefore, Korean government must intercept overissue and overlapping investments on tourism development by the local government and induce qualitative growth of tourism sector through upgrading of development guidelines and the criteria for selecting tourism special zone, regional festival and cultural assets, and its continuous assessment and management. And it is desirable to enforce the connected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5+2 great-sphere economic blocs on government-level.

■ keyword : | Tourism Resource | Tourism System | Tourism Strategy | Regional Economic |

## I. 서론

지역발전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있는 지역을 창조한다는 기치 아래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성화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광역경제권별로 역내에 산재해 있는 자원과 문화관광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지역재정 기반확충, 기업의 지방입지 여건개선,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 지역중심산업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2]. 한편, 지방정부는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된 관광자원 개발전략은 빈약한 지방정부의 세수, 부동산 지가상승을 통한 불공정한 이익배분, 지역주민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비용 등으로 비난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관광자원이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에 무엇인가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생활여건에 명확한 향상을 의미해야 한다는 Friedmann의 주장[17]과 배치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Dwyer & Forsyth[16], Friedmann[17], 박숙진[9], 문화관광부[5], 정승훈[12] 등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지역의 특화된 관광자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관광자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매칭시키는 우리나라의 관광정책과 관광전략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관광자원개발 및 정책 수립시(지방)정부, 관광업계 그리고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출혈 경쟁을 중립화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70~80년대에는 관광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지 개발이 일반 국민들을 위한 관광공간 확충에 기여하였으나, 관광지 구성에 따르는 재원부족과 민간투자자의 유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관광개발의 공익성이 상실되기도 하였으며, 저비용·고효율이라는 경제논리로 관광목적지의 시설수준이 낮아지면서 관광지 지정·구성 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관광지의 공공재

로서의 성격까지도 퇴색되기에 이르렀다[14]. 따라서 관광자원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소위 '예산 따내기식' 관광개발전략이 여과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와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관광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다수의 연구[16][9][17][5][12]와 관광정책의 필요성과 역할[20][23][25][13][6][4]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관광자원이용과 이 과정에서의 관광정책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역관광자원의 속성과 관광정책의 이론적 배경에 관하여 살펴보고, 관광자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이에서의 관광정책의 역할과 영향관계를 고찰한 후, 관광자원, 관광정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관광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지역관광자원

관광자원에 관하여 Zimmerman[29]은 자원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가는 것(resources are not, they become)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장춘[11]은 관광자원을 인간의 관광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생태계(Eco-System)내의 유형 무형의 모든 자원으로 보존·보호되지 않으면 가치를 상실하거나 감소할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박숙진[8]은 관광자원을 관광자의 욕구충족과 관광동기를 유발시키면서 그 특성상 시대의 조류에 따라 자원의 상대적 가치가 변화하는 장소성을 동반한 자원이라고 정의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7]에서는 관광자원을 관광지, 관광단지 그리고 관광특구로 구분하고, 문화자원을 지정문화재와 축제 및 행사로 분류하고 있다. 관광지는 전통적으로 국가, 도시, 도서 등의 지리적 영역으로서[19], 관광지 구성이 활성화될 경우 방문 관광객의 소비로 인하

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주민고용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14]. 관광단지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 지역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위하여 관광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 야간 영업시간 제한을 배제하는 등 관광활동을 촉진하고자 1993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또한 지정문화재는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중요무형문화재로서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거나 관람할 수 있는 상품이나 구매할 수 있는 기념품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관광상품으로 해석되고 있다[관광진흥법 제2조 11항]. 그리고 축제 및 행사는 문화관광자원의 범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인[8]으로, 축제 중 유인력이 높은 문화관광축제는 문화관광부가 외래관광객 유치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품성이 큰 축제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육성할 계획에 있는 문화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 2. 관광정책

### 1.1 관광분야 지원제도

정부는 관광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제조업 중심의 여타산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 분야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3]. 예를 들어 조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관광호텔·유통단지 10년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서비스 사업용 토지개발에 대한 개발 부담금 감면,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4]. 또한 신규투자 및 창업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관광단지 개발투자에 대한 세제 부담금 등의 지원 확대, 관광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시장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해 해외 관광홍보마케팅 예산을 확충하는 한편, 내국인의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홍보 강화 및 여름휴가 분산제를 실시하고, 관광자원의 품격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법률’의 제정 추진 및 지역의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정책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6].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관광분야 지원제도는 아직 개선·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는 해외원조 사업에 관광기업을 포함시키고, 관광분야의 현지조사 및 정보수집과 개발도상국 관광분야의 연구생 훈련, 전문가 파견 등의 해외교류사업을 통해 자국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를 촉진 지원하고 있다[4].

### 1.2 관광객 유치전략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유치전략에는 지역관광 브랜드 전략을 포함하여 지역중심 관광홍보전략, 지역관광마케팅 조직 구성, 지자체의 적극적인 후원행사 등이 언급될 수 있다[3]. 최근 정부의 관광마케팅정책은 지역브랜드를 전략화하여 광고의 접근 방식에 변화를 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례로 남아프리카는 관광슬로건을 “A World in One Country”로 정하고 아프리카인을 포함한 전 세계인들에게 토착민의 부족의식과 종교적 축제문화와 전통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남아프리카만의 유일한 전통성을 주제로 최고의 기후와 저렴한 물가를 내세운 ‘good value for money’ 전략[15]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Middleton and Hawkins[22]가 관광객들의 신뢰는 국가적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문 사업자들과 파트너쉽이 체결된 지역정부의 전략에 있다고 강조한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지역 커뮤니티들은 관광객 유치전략에 자발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하며[20][23][25],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람-중심(people-centric)의 접근’[23]이 요구된다고 언급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축제 및 이벤트의 유치와 개최를 위한 지역홍보와 장소마케팅의 필요성[4]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바, CVB(convention visitors bureau)에 의한 국제회의 홍보전략 모델을 확대 응용한 민관 지역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전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 3. 지역경제 활성화

WTTC의 자료[28]에 의하면, 2010년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GDP 비중 7.1%, 고용기여 8.1%, 투자 6.0%, 정부지출 2.6%로 나타났다. 지역관광산업은 국가거시경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바, 관광객이 유입되면 해당지역 주민의 소득증가효과와 각종 지출을 통한 유발효과가 발생한다[16][14].

농촌실업의 급속한 증가를 경험했던 동부유럽에서는 관광사업을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저개발 지역에 활기를 가져오며 관광지역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지역경제활성제로 활용하고 있으며, 고용창출효과를 통해 농촌과 지역경제를 재생시키고자하는 목적으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27].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규모 투자 자본 없이도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지역축제를 선호하고 있는바 지역고유의 향토문화와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소득이 창출되는 축제로 정착시킴으로써 관광객 확대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5][12][1]. 이렇듯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관광상품화하여 지역민의 소득 증가를 통해 주민세, 사업소득세 등의 지방세를 증가시켜 지역 세수증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III. 연구설계

###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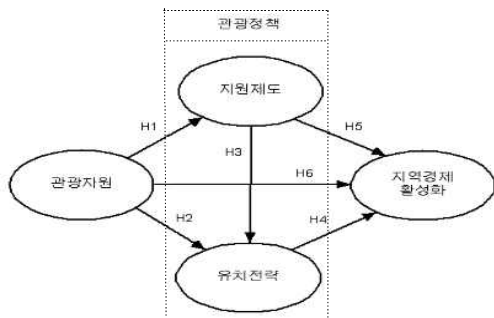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에서는 이론연구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광자원과 관광정책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 관광자원과 지역경제 활성화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관광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관광정책에 관한 측정요인을 지원제도와 유치전략으로 구분하여 관광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고자 개념들의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 2. 연구가설

#### 2.1 관광자원과 관광정책의 관계

관광자원과 관광정책과의 상관관계는 다수의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다[8][7][11]. 관광자원은 관광 매력물로서 관광자원의 가치, 관광행동 및 관광시장의 특성, 관광지의 특성에 의해 변화되고 사회환경에 따라서 변천한다[8]. 그에 연계된 관광정책의 대상과 범주 역시 다양해져 가는 형국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관광정책은 관광자원의 가치와 시공간적 특성, 관광객의 이동성향, Inbound 및 Outbound, 그리고 관광환경의 변화를 기준으로 관광법규 및 제도의 개선, 관광마케팅을 통한 유치전략을 강구하여야 한다[10].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1과 가설2를 설정하였다.

가설1: 관광자원은 지원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관광자원은 유치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지원제도와 유치전략의 관계

관광정책의 구성요소인 지원제도와 유치전략과의 관계 설정은 다수의 선행연구[23][25][22][15]에서 확인되었다. Go & Govers[18]는 관광시설의 품질관리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유치전략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Poon[26]은 지원제도는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유치전략은 관광객의 욕구에 부합되는 고객 지향적 상품구성을 통해 관광목적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상기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가설3을 설정하였다.

가설3 : 지원제도는 유치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관광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계

관광유치전략과 관광지원제도 등 단위지역 관광정책은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5][12][1]. Hall[19]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파급효과분석은 관광지원제도와 유치전략을 시행하기 이전에 정책 결정자들이 미래의 활동에 대한 효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여 대안을 모색하거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여하는 시금석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4와 가설5를 설정하였다.

가설4: 유치전략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지원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관광자원과 지역경제와의 관계

지역관광자원에 의해 수반되어지는 경제활동의 대부분은 관광목적지의 수익구조와 직결된다[16]. 관광객의 지출과 지방정부의 투자는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효과, 고용효과, 산업연관 파급효과 등을 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9][14]. 또한 지역축제의 경우, 향토문화와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소득이 창출되는 축제로 정착시킴으로써 관광객 확대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1]. 이는 특화된 관광자원을 상품화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시설을 다지고 지역주민 전체를 생산과 소비에 끌어들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6을 설정하였다.

가설6: 관광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분석방법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설정한 가설 검증을 위하여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표 1]과 같이 구성하고,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관광자원에 관한 측정변수는 문화체육관광부[7]의 분류에 준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설문응답자 대상지역이 충청권을 포함하고 있어 관광단지 요인은 배제하였는바, 2008년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총 17개 관광단지가 지정되어 있으나, 충청권에는 지정된 곳이 없기 때문이다.

관광정책의 변수 중, 유치전략은 김향재[3]의 연구에서 4개 설문문항을 발췌하여 활용하였으며 지원제도는 문화관광부[7]의 기준에 근거하여 5개 요인을 발췌하여 측정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는 선행연구[27][5][12][1]를 참조하여 지역경제의 촉매역할, 지역세수 증가효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고용증대 4개의 측정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 변수 정의

변수	측정항목	측정문항	관련연구	
관광자원	SN4	관광지(인·물적 인프라)	[25][14] [15][26] [27]	
	SN3	관광특구		
	SN2	지정 문화재 및 유적		
	SN1	축제 및 행사		
관광정책	유치전략	SS4	지역 관광 브랜드전략	[21][22] [25][20] [24][8] [9][10] [11]
		SS3	지역 관광홍보전략	
		SS2	관광마케팅 조직 구성	
		SS1	지자체의 적극적인 후원	
	지원제도	SH1	조세부담 완화	
		SH2	신규투자 및 창업촉진	
		SH3	해외시장 확대 여건 조성	
		SH4	국민 국내 관광활성화	
		SH5	관광자원의 품격과 부가가치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SE4	지역경제의 촉매역할	
SE3		지역 세수증가 효과		
SE2		지역 특화산업 육성		
SE1		고용 증대		

본 조사는 2010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0일 동안 충청지역과 경상도지역의 국·공립 및 재단법인 연구원(소)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기기입식

1 2009년 기준 지자체의 '관광지 시설지 면적 대비 미개발면적 비중'이 가장 높은, 상대적으로 관광지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충청남·북도(58.5%), 경상남·북도(54.9%) 두 지역을 연구표본 추출대상지로 선정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참조).

방식으로 설문에 응하게 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300부이며, 이중 불성실한 설문지 17부를 제외하고 최종 283부가 본 연구에 이용되었다. 데이터의 통계 처리는 SPSS 15.0과 AMOS 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실증분석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전체 283명의 응답자 가운데, 남성이 215명(76%), 여성이 68명(24%)을 차지하였으며, 나이는 20-29세가 52명(18.4%), 30-39세가 105명(37%), 40세 이상이 126명(44.6%)으로 40세 이상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학력은 모집단의 소속이 연구원이므로 대졸과 대학원이상으로 구분하였고, 대졸이 21명(7.4%), 대학원졸 이상이 262명(92.6%)을 차지하였다. 직급은 연구원이 117명(41.3%), 책임연구원급 이상이 166명(58.7%)로 나타났고, 근무년수는 2년 미만인 41명(14.5%), 2-5년이 87명(30.8%), 5-10년이 92명(32.5%), 10년 이상이 63명(22.2%)으로 나타났다.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구성비(%)
성별	남성	215
	여성	68
나이	20-29세	52
	30-39세	105
	40세 이상	126
학력	대졸	21
	대학원이상	262
직급	연구원	117
	책임연구원급이상	166
근무년수	2년 미만	41
	2-5년	87
	5-10년	92
	10년 이상	63

2.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독립변수인 관광자원에 대한 측정항목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결과는 [표 3]과 같다. KMO 측도는 0.740, Bartlett's 검정결과  $\chi^2=151.557(df=6, p<.001)$ 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요인분석에 적합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은 직교회전 방식인 Varimax를 사용하였으며, 요인적재량은 0.6이상이고, 고유값은 2 이상, 분산설명력은 53.37%이며, 신뢰성분석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0.707로 나타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표 3. 관광자원의 탐색적 요인분석

변수	측정항목	요인적재량	공통성	평균
관광자원	SN4 관광지(인·물적 인프라)	.792	.464	3.94
	SN3 관광특구	.749	.627	3.95
	SN2 지정 문화재 및 유적	.696	.560	3.77
	SN1 축제 및 행사	.681	.484	3.73
아이겐 값			2.135	
분산 설명력			53.376	
신뢰도 계수			.707	

관광정책 변수인 유치전략과 지원제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결과는 [표 4]와 같다. KMO 측도는 0.905, Bartlett's 검정결과  $\chi^2=855.973(df=36, p<.001)$ 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요인분석에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은 직교회전 방식인 Varimax를 사용하였으며, 요인적재량은 0.7이상이고, 고유값은 2이상, 전체 분산설명력은 63.717%이며, Cronbach's  $\alpha$  계수는 각각 0.782, 0.870으로 나타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표 4. 관광정책의 탐색적 요인분석

변수	측정항목	요인적재량	공통성	평균	
유치전략 (1)	SS4 지역 관광 브랜드전략	.728	.641	4.04	
	SS3 지역 관광홍보전략	.734	.611	3.57	
	SS2 관광마케팅 조직 구성	.751	.619	4.00	
	SS1 지자체의 후원	.722	.556	3.77	
지원제도 (2)	SH1 조세부담 완화	.669	.558	3.75	
	SH2 신규투자 및 창업촉진	.742	.631	3.65	
	SH3 해외시장 여건 조성	.795	.694	3.85	
	SH4 국민 국내 관광활성화	.817	.701	3.80	
	SH5 관광자원의 품격과 부가가치 제고	.798	.724	3.80	
아이겐 값		3.208		2.527	
분산 설명력		(1)	35.641	(2)	63.717
신뢰도 계수		.782		.870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결과는 [표 5]와 같다. KMO 측도는 0.805, Bartlett's 검

정결과  $\chi^2=289.990(df.=6, p<.001)$ 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요인분석에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은 직교회전 방식인 Varimax를 사용하였으며, 요인적재량은 0.7이상이고, 고유값은 2이상, 전체 분산설명력은 64.778%이며, 신뢰성분석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각각 0.817로 나타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표 5. 지역경제 활성화의 탐색적 요인분석

변수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공통성	평균
지역경제 활성화	SE4 지역경제의 촉매역할	.776	.671	4.18
	SE3 지역 세수증가 효과	.793	.603	3.75
	SE2 지역 특화산업 육성	.819	.689	3.64
	SE1 고용 증대	.830	.629	3.85
아이젠 값		2.591		
분산 설명력		64.778		
신뢰도 계수		.817		

3. 확인 요인분석과 상관관계 검증

잠재요인에 포함된 전체 측정항목들을 대상으로 한 확인요인분석(CFA)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관광자원, 유치전략, 지원제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수가 최적모형의 적합도 기준치( $GFI \geq 0.9, CFI \geq 0.9, RMR \leq 0.5$ )에 만족하여 분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 전체 확인적 요인분석

변수	측정 항목	경로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경로계수	t값
관광자원	SN4	1.000		0.712	
	SN3	0.987	0.148	0.695	6.661**
	SN2	0.839	0.137	0.731	6.134**
	SN1	1.158	0.155	0.722	7.466**
유치전략	SS4	1.000		0.745	
	SS3	1.089	0.111	0.721	9.780**
	SS2	0.943	0.100	0.694	9.428**
	SS1	0.795	0.097	0.799	8.170**
지원제도	SH1	1.000		0.684	
	SH2	1.013	0.103	0.738	9.825**
	SH3	1.082	0.107	0.765	10.146**
	SH4	1.046	0.102	0.775	10.259**
	SH5	1.219	0.113	0.824	10.802**
지역경제 활성화	SE4	1.000		0.774	
	SE3	0.897	0.094	0.669	9.539**
	SE2	1.022	0.095	0.752	10.748**
	SE1	0.829	0.081	0.716	10.232**

$\chi^2/df=161.241(113, p<.001), RMR=0.028, GFI=0.919, AGFI=0.890, NFI=0.903, CFI=0.963, RMSEA=0.044$

주:  $p<.0001$

구성개념 간 판별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은 상관계수의 신뢰구간 ( $\pm 2$  표준오차)에 1.0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AVE 값은 0.5이상이며 AVE가 모두 상관관계 제곱보다 커야 한다. 본 분석은 아래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관관계분석결과 이를 모두 충족하여 판별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7. 상관관계 행렬

변수	관광자원	관광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유치전략	지원제도	
관광자원	0.514	0.295	0.236	0.221
유치전략	0.543	0.548	0.385	0.334
지원제도	0.486	0.621	0.576	0.371
지역경제활성화	0.470	0.578	0.609	0.531

- 주: 1) 모든 상관계수는  $p<.001$ 에서 유의함.
- 2) 대각선 진한 숫자: 평균분산추출값(AVE)
- 3) 대각선 아래 숫자: 상관계수(r)
- 4) 대각선 위쪽 숫자: 상관관계 제곱( $r^2$ )

3.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가설검증

본 연구의 잠재요인간 영향관계에서 구조모형을 기반으로 검증한 최종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61.241$  ( $df.=113, p<.001$ ),  $RMR=0.028, GFI=0.919, AGFI=0.890, NFI=0.903, CFI=0.968, RMSEA=0.044$ 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차이가 없으며, 적합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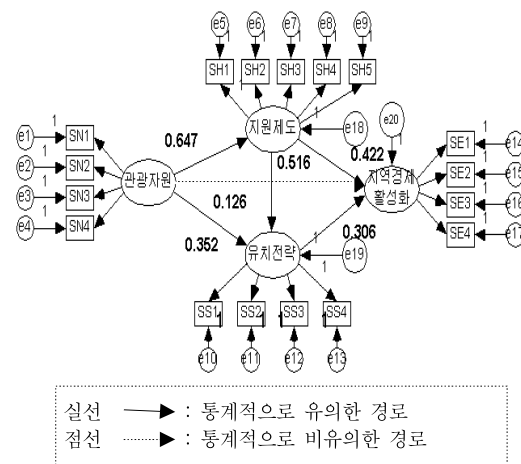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가설검정

연구모형 검증결과는[그림 2]와 같고, 구조모형 가설

검증의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이 정리되었다.

표 8. 가설검증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경로계수	t값 (p값)	결 론
H1	관광자원 → 지원제도	0.922 (0.167)	0.647	5.525(**)	채택
H2	관광자원 → 유치전략	0.507 (0.169)	0.352	3.187(**)	채택
H3	지원제도 → 유치전략	0.522 (0.106)	0.516	4.937(**)	채택
H4	유치전략 → 지역경제활성화	0.326 (0.136)	0.306	2.387(*)	채택
H5	지원제도 → 지역경제활성화	0.455 (0.125)	0.422	3.653(**)	채택
H6	관광자원 → 지역경제활성화	0.194 (0.170)	0.126	1.142(****)	기각

주: \*:p<0.05, \*\*:p<0.01, \*\*\*:p=0.254

4. 잠재요인간 효과분석

잠재요인간 효과분석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관광자원은 지원제도, 유치전략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각각 0.647, 0.686, 0.609의 총 표준효과를 보이이고 있는바, 그 중 지원제도에는 0.647의 직접효과만 미치는데 비하여, 유치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각각 0.352, 0.126의 직접효과와 0.334, 0.483의 간접효과도 미치고 있다.

표 9. 잠재요인간 효과분석

구분	변수	관광 자원	지원 제도	유치 전략
표준화 총효과	지원제도	0.647		
	유치전략	0.686	0.516	
	지역경제활성화	0.609	0.580	0.306
표준화 직접 효과	지원제도	0.647		
	유치전략	0.352	0.516	
	지역경제활성화	0.126	0.422	0.306
표준화 간접 효과	지원제도			
	유치전략	0.334		
	지역경제활성화	0.483	0.158	

주: 총효과=직접효과+간접효과

즉 관광자원은 유치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과 보다는 지원제도를 통한 간접효과가 더 크게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원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0.580의 총 표준효과를 나타내

고 있는데, 이중 직접효과가 0.422, 유치전략을 통한 간접효과는 0.158로 유치전략을 통한 간접효과보다는 직접효과가 크게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원 제도는 관광자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이에서 매개변 수로서 중요한 영향력이 있음이 밝혀졌다.

V. 결 론

지역관광자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상관관계는 관광 정책 시행 후 나타나는 사후적인 것이기 때문에 먼저 제도적 지원과 유치전략의 직 간접효과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전적 관광정책 기획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최종 설정된 4개 변수 17개 측정문항은 구체적인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되었고 과학적 통계 기법을 통하여 분석 검증되었기 때문에 관광자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논의에서 관광정책의 직 간접효과는 매우 유의미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하겠다.

첫째, 지역관광자원과 관광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가설을 검증한 결과, 지역관광자원이 풍부할수록 지원제도와 유치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관광자원이 관광정책 및 전략의 다양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상품화함에 있어서는 단일개발방식보다는 포인트 투 포인트 선형개발방식으로 유사성격의 관광자원을 패키지로 전략 화합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원제도는 유치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o & Govers[18]와 Poon[26]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는바, 정부의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세제혜택, 관광개발에 따른 법적 규제완화 등 본원적 장치가 관광객 유치전략에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관광자원개발과 관련된 지자체의 난개발 및 환경파괴, 부동산투기 등 부정적 파생효과에 대한 대안 및 사전조치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셋째, 관광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유치전략에 의한 효과보



다 지원제도에 의한 간접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관광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광정책의 개입이 필요함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부담 완화, 신규투자 및 창업촉진, 해외시장 확대 여건조성, 내국민 국내 관광활성화, 관광자원의 품격과 부가가치 제고 등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기존 특별법 등을 정비하되, 이를 기반으로 지역관광브랜드전략, 민관 지역관광홍보 및 관광마케팅 조직화전략, 지자체의 관광객 유치전략 등을 활용할 때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관광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예상외로 기각되었다. 즉 아무리 우수한 지역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광정책이 구체적으로 기획·시행되지 않으면 지역경제에 무익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Dwyer and Forsyth[16]의 연구결과를 일부분 반박하는 것으로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광정책이 실행될 때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관광특구, 지역축제, 문화제의 지정 등을 통한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패키지화를 추구함으로써 관광분야의 spillover 효과를 피하되, 개발 및 선정기준의 업그레이드와 지속적인 평가관리를 통해 지자체에 의한 남발과 중복투자를 막고 관광부문의 질적 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5+2광역경제권이 출범한 상황에서 관광분야의 광역연계협력사업이나 초광역적 연계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함이 바람직해 보이며, 이에 따른 정부의 문화관광부문 중장기계획의 조정과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는 표본 추출에 있어 제한된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한계성이 존재하는바,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표본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관광자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계에서 관광정책의 파급효과를 좀 더 일반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1] 김창수, “지방정부의 축제이벤트 재무 비교연구”, 관광경영학연구, 제8권, 제1호, pp.85-101, 2004.
- [2] 김태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역경제: 대전-충청권을 중심으로”, 대전발전연구원, 2009.
- [3] 김향자, “지방도시 발전에 있어서 관광의 정립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 [4] 김희수, “관광산업의 고용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 [5] 문화관광부,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연구”, 2006.
- [6] 문화관광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2006.12.
- [7] 문화체육관광부, *체류형 통합서비스 기반체계 구축 연구*, 2008.
- [8] 박숙진, “한·독 문화관광거리 국제 비교연구: 관광자원·문화행사및축제·운영시스템·관광자원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04.
- [9] 박숙진, “관광산업 경쟁력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관광정책학연구, 제10권, 제2호, pp.39-61, 2004.
- [10] 이장춘, *관광정책학*, 대왕사, 서울 1990.
- [11] 이장춘, *최신관광자원론*, 대왕사, 서울, 1998.
- [12] 정승훈, “지역축제의 서비스품질, 지각된 가치, 만족, 충성도의 영향 관계: 제주이호테우축제를 사례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1호, pp.391-402, 2010.
- [13] 정승훈, 오상훈, 강성진,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제도개선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07.
- [1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 제도 개선 방향 연구”, 2010.
- [15] J. Briedenhann and E. Wickens, “Tourism routes as a tool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rural areas—vibrant hope or impossible dream?,” *Tourism Management*, Vol.25, pp.71-79, 2002.
- [16] L. Dwyer and P. Forsyth, “Assessing the benefits and costs of inbound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20, No.4, pp.751-768, 1993.

[17] J. Friedmann, *Empowerment: The politics of an alternative development*, Blackwell, Oxford, 1992.

[18] F. M. Go and R. Govers, "Integrated quality management for tourist destinations: A European perspective on achieving competitiveness," *Tourism Management*, Vol.21, pp.79-88, 2000.

[19] T. Hall, *Urban Geography*, Routledge, 1998.

[20] K. M. Haywood, "Responsible and responsive tourism planning in the community," *Tourism Management*, Vol.9, No.2, pp.105-107, 1988.

[21] G. D. Jud and W. Krause, "Evaluating tourism in developing areas: An exploratory enquiry,"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15, No.2, pp.1-9, 1976.

[22] V. T. C. Middleton and R. Hawkins, *Sustainable tourism: A marketing perspective*, Butterworth Heinemann, Oxford, 1998.

[23] P. E. Murphy, "Tourism as a community industry: An ecological model of tourism development," *Tourism Management*, Vol.4, No.3, 1983.

[24] E. Ndala, "Mpumi talk, nelspruit," South Africa: dynamic Ad. Open Africa(2002), Information Relating to the African Dream Project, Cape Town: Open Africa, 2001.

[25] J. Pigram, "Planning for tourism in rural areas: Bridg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gap," in D. G. Pearce Butler(Eds.), *Tourism research: Critique and challenge*, pp.156-174, 1993.

[26] A. Poon, *Tourism, technology and competitive strategies*, Oxon, UK: CAB International, 1993.

[27] Queensland Heritage Trails Network, "Cultural Tourism Incentive Programme 2000-2002," Queensland Government Department of the

Premier and Cabinet, Brisbane, 2000.

[28]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WTTC), *Travel & Tourism Economic Impact 2010*, 2010.

[29] E. S. Zimmerman, *World Resources and Industries*, revised 2nd ed, Harper, New York, 1951.

저 자 소 개

김 태 현(Tae-Heon Kim)

정회원



- 2000년 11월 : University Regensburg(경제학박사)
- 2004년 ~ 2005년 : 한국무역협회 선임연구위원
- 2005년 ~ 현재 :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제정책, 국제경제학, 지역경제학

박 숙 진(Suk-Jin Park)

정회원



- 2004년 2월 : 경기대학교대학원 관광경영학과(관광학박사)
- 2004년 ~ 2008년 : 한세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2008년 ~ 현재 : 한국관광평가원 연구위원

<관심분야> : 관광정책, 국제문화관광, 관광자원개발, 연구조사방법론